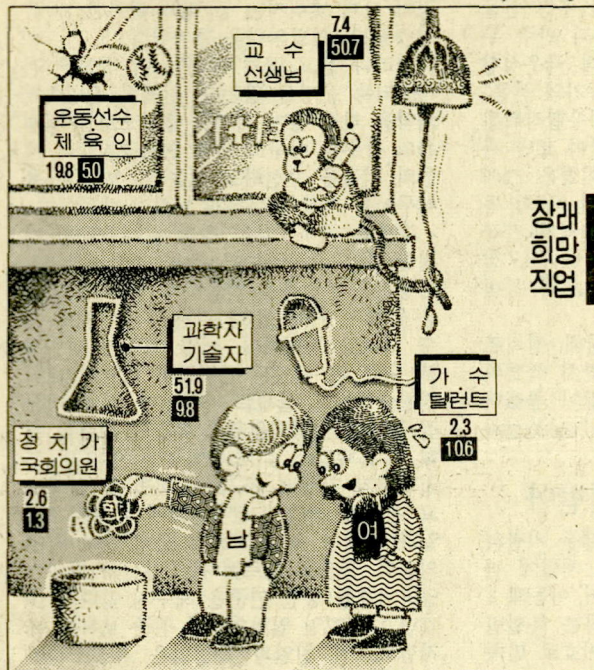




장래
희망
직업

〈자료 =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, 그림 = 김영훈 기자〉

국교생 장래희망, 남 과학자 여 선생님

국민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남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 전국 국민학교 4~6학년 4천4백명을 대상으로 '장래희망직업'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 51.9%가 '과학자·기술자'를 선호한 반면, 여학생은 '교수·선생님'이 50.7%로 가장 높았다. 2순위로는 남학생이 '운동선수·체육인'(19.8%), 여학생은 '가수·탤런트'(10.6%)를 꼽았고, 정치가·국회의원은 남녀학생 모두 2.6%, 1.3%로 선호도가 상당히 낮았다.